



에이즈예방을 위한 제언

건전한 관광문화, 건전한 월드컵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



이종구
국립보건원 방역과장

1985년 우리나라에서 HIV감염자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에이즈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감염자로 확인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도 말까지 1,613명이 확인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52%나

증가하였다. 더구나 금년에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동 행사를 전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 급증으로 에이즈 및 성병은 물론 각종 해외유입전염병의 국내전파 및 확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콘돔사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염자의 증가가 우려된다.

따라서 금년에는 월드컵 행사를 전후하여 집중적인 에이즈예방을 위하여 에이즈관련 민간단체와 각급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감염위험집단에 대한 콘돔사용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생활 등을 주제로 TV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콘돔배포, 콘돔자판기 설치,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집중 캠페인,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윤락여성 및 유흥업종사자뿐 아니라 청소년계층, 일반국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에이즈 예방 및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콘돔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조인제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
보건국 보건복지과장

에이즈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들은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있어 에이즈전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에이즈 감염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월드컵 대비 에이즈 예방대책팀이 지금이라도 구성되어야 한다. 대책팀 구성은 정부실무자, 에이즈관련 NGO 및 보건소담당자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대책팀은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효율적,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할 수 있으며 업무 및 자원의 중복을 피할 수도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특수 접대부 대상으로 100% 콘돔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 외국인숙박시설, 유흥시설, 선수촌, 공항 등에서 손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비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내, 외국인이 에이즈 예방 홍보자료를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로 만든 리플렛을 공항, 호텔 등에 비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세계의 모든 축구 팬을 흥분의 도가니, 아니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에 한치의 여념도 없는 현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건전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다.

넷째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텔레비전, 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에이즈 예방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상은 매우 상식적이고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가 종합적으로 힘을 합쳐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여러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각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월드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예방교육, 홍보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6년 전 당시에는 현재보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크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감염자 수가 미미한 정도였고 또한 에이즈 확산에 필요한 위험 요소도 적었기 때문에 그다지 에이즈 유입이나 확산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국내에서 다시 열리게 될 커다란 국제행사인 월드컵은 당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와 여건 속에서 열리게 됨은 극히 자명한 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심각한 시험무대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각자가 에이즈 확산 방지의 책병이라 생각하고 옷깃을 단단히 여미어야 하겠지만,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기간 내내 안내하고 도와 줄 여행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유흥업과 같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 사전에 에이즈와 성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우리 청소년 및 젊은이들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함께 무척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건전한 권유나 안내 하나 하나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에이즈 유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서 건전한 관광분화를 통해 성공적인 월드컵을 이루게 하리라 생각한다.

관광종사자들의 분발을 기대



김준명
연세대학교 김연너과 교수

이제 전세계의 모든 축구 팬을 흥분의 도가니, 아니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에 한치의 여념도 없는 현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건전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88년 거국적으로 올림픽 행사를 치르면서 흑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면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려한 에이즈의 확산 없이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긴 바 있다.

